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

안산시-안산도시개발(주)-SPG수소(주), 전국 최초 수소생산기지-수소충전소 직접 연결

지하 스마트 배관 연결... 내년 12월 준공 목표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수소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스마트 배관으로 연결하는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6일 안산도시개발(주), (주)SPG수소와 ‘2020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다.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주)SPG수소의 수소생산기지에서 생산하는 수소를 지하에 매설된 스마트 배관으로 2.5km 거리에 있는 수소충전소로 연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

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준공은 내년 12월 목표로 추진된다. 기존 수소충전소와 달리 안산시가 추진하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튜브트레이러 수소공급방식이 아닌, 스마트 배관을 통해 수소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수소생산기지에서 충전소로 수소가 직접 연결되면서, 수소충전소 이용 시민 입장에서보다 보다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충전소에 추가로 수소를 공급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급

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 등 스마트 배관 시스템이 갖춰져 운영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도시공사(주), (주)SPG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는 단원구 초지동 67-2-2 일원에 있는 2천㎡ 부지를 제공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에 나서며, (주)SPG수소는 수소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수소를 충전소와 연결하는 스마트 배관을 구축하게 된다. 시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부담하고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 투입된다. 수소충전소 구축에 30억(국비 15억·도비 4억5천만·시비 10억5천만), 배

관 구축에 15억(도비 4억5천만·시비 7억5천만·민간 3억) 등이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최영길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와 이성재 (주)SPG수소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청정도시 안산시로 가는 첫 걸음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다짐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길 바라며, 안산시민의 차별적인 수소충전 인프라로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끼며 수소 인프라 확대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필영 기자**

성남-분당경찰서,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협약

신흥동 시유지-금곡동 국유지 재산교환... 행정복지·치안 서비스 동시 제공

성남시가 분당경찰서와 시·국유지 재산 교환을 통해 오는 2023년 6월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와 금곡지구대가 함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시는 11월 6일 오후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정구 신흥동(현재 신흥지구대 자리) 시유지와 분당구 금곡동 국유지(현

재 금곡지구대 자리) 재산을 맞교환한다. 성남시는 신흥동 3775번지 942㎡(5.6억8500만원 상당)의 시유지를 분당경찰서 소유로 넘기고, 분당경찰서는 금곡동 173번지 670㎡(5.6억9800만원 상당) 국유재산을 성남시 소유로 넘기는 방식이다.

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뒤 노후하고 협소한 바로 옆 174번지 금곡동 행정복지센터(1994년 준공)와 금곡지구대(1996년 준공)를 헐고 그 자리에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성남시는 금곡동 복합청사 건립에 131억원을 투입하며, 대지면적 1420㎡(동 센터 750㎡+지구대 670㎡)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면적 4200㎡ 규모의 건축물을 세운다. 복합청사 완공 후엔 2개 층 700㎡ 규모 독립된 공간을 분당경찰서에 무상 대부해 금곡지구대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행정복지와 치안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성규 기자**

경기도내 유관기관,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협약 체결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내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과 ‘경기도 내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는 센터 이용 청소년 중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필요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연계한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게 상담 및 심리교육을 지원하고, 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 중 주거 및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자립지원관으로 연계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중 검정고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해당 거주지 시군 ‘꿈드림’으로 연계해 교육 및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남부청소년

자립지원관장 김형근,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장 박현동,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유순덕(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겸직) 외 29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9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도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은 도내 위기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며, 위기청소년들에게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기자**



6일 김상돈 의왕시장과 장충모 LH 경기지역본부장이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왕, LH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 포일2지구 주차난 ‘숨통’

120면 규모 주차장 조성... 내년 1월부터 운영

의왕시는 포일2지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 국토지주택공사(LH)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상돈 의왕시장과 장충모 LH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며, 의왕포일2지구 내 LH공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에서 무상 임대해 2020년 9월 30일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지면적 5,500㎡(1,663평)에 약 120면 규모의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LH는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포일동 지역은 그동안 주차수요가 높았던 곳으로써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인접 주민과 업무시설 종사자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오는 12월 공사완료 후 2020년 1월부터 운영될 예

정이며, 앞으로 양측에서 합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하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포일동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및 사업비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기관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남 기자**

동두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중앙투자 심사 통과

동두천시(시장 최용덕)의 오랜 숙원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동두천시 원도심에 30여 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안전대책과 개발 요구가 제기되어왔던 생연동 557-3번지 외국인거주 아파트 부지에 세대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동두천시는 이곳에 북 카페와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공연장, 청소년특화도서관, 아이사랑 놀이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연면적 7,540㎡(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에서는 신도심 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주변에 14개의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으나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또 한 94년도에 건립된 시립도서관의 수용능력 한계, 생활문화센터의 포화에 따른 방안 모색 중 최용덕 시장의 결단과 의지로 수십 년간 동두천시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던 외국인 거주 아파트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사업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한 생연동 594-1번

지에 연면적 6,218㎡, 지상 3층 규모의 행복드림센터(시민수영장) 건립 사업도 같은 날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25미터 레인 6개와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이 들어서는 행복드림센터는 최용덕 시장의 최우선 공약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행정안전부의 심사 과정에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행복드림센터(시민수영장)사업에 대하여 적정규모의 시설 건립 의견에 따라 동두천시에서는 객관적인 수요추정과 제반 여건 등을 감안·반영한 건립 계획안을 확정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진 기자**




한반도 평화수도

제23회 | 2019

The 23rd PAJU Jangdan Soybean Festival

파주장단콩축제

11.22금 ~ 24일 파주 임진각광장 및 평화누리 공원

주최_파주시 주관_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NH농협 파주시지부

후원_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파주문화원, 지역농업협동조합,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시지사, 파주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문의_파주시농업기술센터 (031)940-5281~3

장소_파주시 문산을 임진각로 177 (임진각광장)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역에서 행사장까지 무료셔틀버스 수시운행(09:00~18:30)

반값택배

구입하신 농산물 택배비를 반값에 이용하세요

무료배달

구입하신 농산물은 주차장까지 무료로 옮겨드립니다

인구급감에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軍 상비병력도 감축

중간간부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 및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 개편…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 도입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

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년

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은 추진된다.

교원수급과 연계해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된다. 정부는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시행해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을 광역화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 자격 표시와

목을 세분화 했던 과학으로 광역화 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하는 식이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 공유형, 캠퍼스형 등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유형은(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의 운영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성인학습자를 위해 학사제도도 개선한다.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유연학사 제도를 대학이 적극 도입,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30만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체계 및 어리인집 여군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또 충원이 어려운 초임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군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함아

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더불어 중간 계급 간부의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을 고려해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읍

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 위주에서 노인도래가구나 출산·양육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

지방재정절감과 행정기구 간소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나 보건소 등을 공동 설치하고 사업·인건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승만 기자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2021년까지 구축

518종 시스템 ‘행정데이터’·IoT센서 ‘도시데이터 한 곳에 저장·분석·활용’
과학적 분석 통한 시민 중심 행정혁신·도시문제 활용 등 스마트시티 중추 인프라

서울시는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행정, 산업, 도시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첫 단계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S-Data, Smart Seoul Data)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2021년까지 구축한다.

올해 109억원을 시작으로 3년 간 총 289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에서는 교통·시설·복지 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518종 시스템의 ‘행정데이터’와 IoT센서(S-Dot)에서 수집하는 ‘도시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처리한다. 총 데이터 용량은 약 4 Peta Byte로, 1GB(기가바이트) 용량의 영화 약 400만 편 규모와 맞먹는 방대한 양이다.

기관·부서별로 분산돼 처리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 수집·관리를 일원화해 활용도 높은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생산·활용·개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그동안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총 5,400여개의 데이터셋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행정 데이터가 각 기관, 부서별로 저장·관리되는 칸막이 구조로 인해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저장소에 수집된 모든 공공데이터는 교통, 안전 등 각종 서울시 정책과 시민체감도 높은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과학적 자료가 된다. 예컨대, 한옥 등 건축물 정보와 의료기관·소방시설·구급차 정보 등 데이터를 융합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화재나 응급구조 준비에 활용할 수 있다.

행정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데이터광장, 빅데이터캠퍼스, 디지털시민시장 등을 통해 개방된다.

특히, 민간공동 빅데이터 협력으로 제작하고 있는 융복합 데이터는 디

지털 산업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공공의 지하철·버스 이용 정보, 부동산 정보와 민간의 통신사 유동인구, 점포매출 데이터 등을 결합해 서울시내 상권별로 발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상권발달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이 지수를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나 우대서비스 제공 시 지표로 활용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S-Data)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S-Net), ‘도시데이터 센터’ (S-Dot)와 함께 스마트시티 서울을 이끌어갈 주요 3대 인프라 축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과 함께 공유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는 공공데이터 저장·활용을 위한 일원화된 통합관리 체계와 막대한 양의 원천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는 물리적 인프라(Data lake)로 구성된다. 각 기

관, 부서 간 데이터 연계·활용의 장벽을 없애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데이터의 양과 품질을 대폭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모든 데이터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원시데이터 형태로 저장·제공된다.

이를 위해 우선 실·국·본부 및 산하기관과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데이터 및 도시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 안정성과 활용성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린데이터광장, 빅데이터캠퍼스 등의 인프라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고도화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서울’ 실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통한 공공데이터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정내부의 혁신과 수준 향상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의 창업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남 기자

KB손해보험, 시간제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 출시 보험 필요한 시간에만 선택적 보장… 안전장치 마련

출시

보험

필요한

시간에만

선택적

보장…

안전장치

마련

KB손해보험은 6일 국내 최초로 온디맨드(On-demand, 스위치 또는 On-Off 보험이라고도 함)방식을 적용한 시간 단위의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KB손해보험 상품총괄 김경선 부사장을 비롯해 우아한정년들 윤현준 대표, 스톨티켓의 김정은 대표 및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간제 배달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모델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KB손해보험이 출시한 시간제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은 임시 배달업종사자에 대한 위험보장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표 배달업 ‘배달의민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온디맨드 보험영역의 스타트업 회사인 ‘스톨티켓’을 포함한 3사 간 협업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이 상품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공유경제에 맞는 혁신 상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배달업 시장이 커지면서 임시 배달업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의 운행 중 사고를 전용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임시 배달업종사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내고 1년짜리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거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가정용 이륜차보험만 가입해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위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발된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보험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온디맨드 방식의 시간 단위 상품이다. 또한 배달 및 택배 업무(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기존에 본인이 가입한 가정용이륜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한 것 등이 주요 특징이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부장 김민기 상무는 “그동안 높은 보험료로 인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택배 및 배달업종사자 분들에게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 화제의 신간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백금남 1456쪽 | 115,000원

삼성문학상 수상 베스트셀러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천만 관객 영화 《관상》, 《명량》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100만부 신화의 재탄생”

1천만 관객 대중상 수상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작이다. – 이청춘 소설가

제대로 갖추어진 소설로서의 틀과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 – 정규용 문학평론가

언어를 잘 꿰어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과 백정의 한과 사무친 설움의 웅여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 – 김선휘 문학평론가·교수

한(恨)이라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백정의 이야기를 도(道)로 승화시킨 점이 아마 가장 훌륭한 점이 될 것이다. – 서정기 문학평론가·교수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무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편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지난 10월1일 보완방안 발표, 11월1일 관계장관회의(복합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월1일)’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최근 분양가격 상승

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편셋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전 지역(25개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

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검토대상 구(區)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됐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2019년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력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법 중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창은 기자

기아차, 카카오 M과 손잡고 ‘MMA 2019’ 후원 글로벌 대중 문화 콘텐츠 활용한 마케팅 활동 박차

기아자동차가 종합 콘텐츠 기업 카카오 M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대중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기아자동차(주)는 지난 5일 BEAT360에서 김상대 기아자동차 고객경험본부장, 김성수 카카오 M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문화 마케팅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카카오 M과의 파트너십 체결은 K-POP을 활용한 문화 마케팅 활동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 및 Z세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기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기아자동차는 카카오 M과의 파트너십 활동의 첫 시작으로 오는 30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MMA 2019(멜론 뮤직 어워드 2019)’에 메인 후원사로 참가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MMA 2019’는 뮤직 플랫폼 ‘멜론’을 운영 하는 카카오가 주최하고 카카오 M과 엠스톤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대중 음악 시상식으로, 내로라하는 K-POP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 축제다.

우선 기아자동차는 메인 후원사로써 ‘MMA 2019’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올해의 베스트송’ 상에 대한 명명권을 가진다.

또한 K-POP 스타들이 포토타임을 가질 레드 카펫과 메인 행사장인 시상식 현장에 하이클래스 소형 SUV 셀토스를 전시해 기아 브랜드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는 국내외 고객들을 ‘MMA 2019’ 현장으로 초대하는 고객 초청 이벤트도 시행한다.

17일까지 기아 VIK 앱에서 진행되는 ‘기아 올해의 차’ 투표 이벤트에 참가하는 국내 고객 중 25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해 현장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월드투어와 연계해 21개국 100명의 해외 고객들을 한국으로 초청, △기아자동차 시승체험 △블랙핑크 팬미팅 △K-Culture(댄스, 메이크업 등) 체험 △‘MMA 2019’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Kia Lucky Drive to Seoul’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MMA 2019’ 후원을 시작으로, 카카오 M과의 협

업을 통해 다양한 K-Culture 문화 콘텐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아자동차는 밀레니얼 세대 및 Z세대와의 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K-POP 문화 마케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우선, 기아자동차는 올해 초부터 전 세계 20여 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한 ‘블랙핑크 2019 월드 투어 위드 기아(BLACKPINK 2019 WORLD TOUR with KIA)’를 후원했다.

기아자동차는 블랙핑크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마다 주요 차종이 전시된 포토존과 더불어 K-POP 커버댄스대회, K-POP 싱잉존 등 K-POP 체험 콘텐츠로 구성된 ‘기아 온 비트 스테이지(Kia On Beat Stage)’를 설치해 투어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K-POP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블랙핑크 컨셉으로 외관 디자인을 꾸민 차량을 전시하여 공연장을 찾은 고객들이 기아 자동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매거진 엘르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핑크X엘토스 콜라보레이션 화보 및 브랜드 필름을 제작해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는 올해 초 데뷔한 신인 걸그룹 이지(ITZY)의 데뷔곡 ‘달라달라’ 뮤직비디오에 쏘울 부스터를 등장시키며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2월 공개된 이지(ITZY)의 ‘달라달라’ 뮤직비디오는 현재까지 1억 5,000만뷰를 돌파해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쏘울 부스터와 이지(ITZY)의 콜라보레이션이 감동적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기아자동차는 K-POP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문화 마케팅 활동으로 백억 원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글로벌 문화 마케팅 전용 디지털 플랫폼 ‘기아 온 비트(Kia on Beat)’를 인스타그램(@kia_onbeat)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아 온 비트(Kia on Beat)’는 K-POP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다채로운 영상·사진 콘텐츠 업로드는 물론, 고객 참여 이벤트 게시 등 글로벌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현재 4만8,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전, BIXPO 2019 개막…에너지신기술 ‘한눈에’

글로벌 기업·전문가 집결…신기술전시회·국제컨퍼런스·국제발명특허대전 등 개최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2019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19)’가 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5회차를 맞은 BIXPO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국내외 초청인사와 참가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오는 8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BIXPO 2019의 주제는 ‘Digital Platform(Hyper-Connectivity & Mega Shift)’으로 사물인터넷(IoT)·빅데이

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촘촘하게 이어진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거대한 변화(Mega Shift)에 주목한다는 의미다.

올해 BIXPO에서는 299개 기업이 참여하는 신기술전시회, 51회의 국제 컨퍼런스, 국제발명특허대전 및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서울대 차상균 교수가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서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개막식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로 촘촘하게 이어진 초연결 사회의 미래모습과 전력산업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 전반의 급격하고 거대한 변화를 미리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며, “빅스포 2019’ 행사가 전력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보물지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기술전시회에는 GE·지멘스·노키아·SK텔레콤·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등 299개 기업이 참여하며, KEPCO홍보관, 수소에너지특별관 등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전시회와 함께 아시아, 북미, 유럽 등 20개국 60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 촉진 성과 창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신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51개의 국제컨퍼런스가 월드뱅크, 국제대전력망기술협의회(CIGRE) 등 국제기구와 대한전기학회, 스마트그리드연구회 등 전문가 및 한전 주관으로 열려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전력에너지 분야

CEO 등 경영진과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Energy Leaders Summit은 ‘전력산업의 Mega Trends와 Business Opportunities’를 주제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인기를 모으는 국제발명특허대전에는 모두 160개 발명품이 전시된다.

유망특허 기술이전 설명회를 통해 한전 보유 특허의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실천한다.

지역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 특산물 장터와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함. 이밖에 테크니컬 투어, 어린이 다양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전력에너지 분야

신한금융 ‘신한 해커톤’ 개최… ‘핀테크’ 주제로 참가자들 팀 이뤄 혁신적인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신한 해커톤’대회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팀

을 이루어 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사를 말한다.

‘신한 해커톤’ 참가자들은 3일 동안 핀테크 서비스를 주제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의 130여개 API와 외부 API를 활

용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대회 마지막 날 발표와 심사를 통해 13팀에게 총상금 3,400만원이 수여되며, 대상 1팀에게는 1,000만원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2팀에게는 각

500만원, 우수상 4팀 각 200만원, 장려상 6팀에게 각 10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입상팀 전원에게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졸 신입공채’, 신한은행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 스페이스’ 및 국내 대

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 지원 시 서류심사 면제의 특전이 제공된다.

접수기간은 13일까지이며, ‘신한 해커톤’ 전용 온라인 사이트(shinhan-hackathon.com)를 통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일반기업 직원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예슬 기자

정부는

3.0

사랑한다면,
금연하세요♡

금연약속,
올해는 꼭 지키세요!

금연 하나 했을 뿐인데
당신은 건강해지고, 가족은 더 행복해집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금연치료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연세 20세까지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지원내용

● 8주에서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 제공
● 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80%지원,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 일부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

●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금연치료 의료기관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ns.or.kr)에서 확인 가능

인센티브 지급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부담금 환급과 건강관리 물품 지급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서울시, 내달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도심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1년 36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 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

으로 단속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

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추진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

였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

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 여대로 분석됐다.

광장시장 빈대떡부터 강동명일시장 천연염색 스카프까지

‘2019 서울전통시장박람회’ 8~9일 서울광장서 개최... 대표 먹거리·특산물 한자리에

광장시장 빈대떡, 독도시장 건어물, 서울약령시장 한방제품, 강동명일시장 천연염색 모자와 스카프까지...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대표 먹거리와 특산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오는 8~9일 양일간 서울광장에서 ‘2019 서울전통시장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 시내 20개 자치구 35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주간시간(10~18

시)과 야시장(17~22시)으로 나눠 특색 있는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예부터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각 지역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과 시민들의 생활방식 변화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개최하는 ‘전통시장박람회’는 각 시장별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상품홍보는 물론,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상인연합회 주최가 되어 각 자치구별 대표 전통시장을 선정하고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 가격 등에 대한 꼼꼼한 사전 심사를 거쳐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특징. 또한 프로그램도 상인들

이 직접 구성해 상인-시민의 화합의 장을 꾸민다.

또한 현장에서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로페이 1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추가구매 가능 쿠폰(3,000원) 또는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 판매 외에도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체험과 이벤트, 문화공연도 마련해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민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전통시장박람회는 시민은 물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전통시장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남 기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 확대... 월 최대 1만9800원 적립

기존 300→350~450원으로 늘려... 시범사업 대상지역도 추가

광역버스나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통행자에 대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이 늘어났다.

국도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부터 편도 1회 교통비 2,000원 이상인 광역통행자의 광역알

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300원에서 350~450원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걸거나 자전거로 800m를 이동하면 마일리지를 주고 있다.

마일리지는 1회 교통비가 2,000원 이하이면 250원, 2,000원 초과 300원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교통비가 2,000~3,000원이면 350원, 3,000원을 초과하면 450원으로 증액됐다. 교통비 2,000원 이하 마일리지는 250원

그대로다.

이에 따라 매일 출퇴근해 월 44회 카드를 이용하는 정기통근자의 경우 마일리지 최고 적립액이 1만3,2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달까지 광역 통행자는 기본요금(경기광역버스 2,800원)이 높아 시내 통행자에 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를 통한 교통비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현재 부산과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대구, 광주, 서울8개구(종로·서초·강남)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현재 홈페이지(alcard.kr)를 통해 체험단을 추가 모집 중이다.

■박종민 기자

KT&G 장학재단, 10년 넘게 이어온 장학사업 성과 담은 백서 발간

약 4000여명의 교육 소외계층에 안정적인 교육 기회 제공

KT&G 장학재단이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10년 넘게 이어온 장학사업의 발자취를 담은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KT&G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 공익법인인 KT&G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의 꿈을 키

워나가는 학생들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혜자는 3,932명에 달하며, 누적 지원금액은 252억원 규모이다.

이번 백서에는 장학재단의 사업 소개와 연혁, 선발 장학생들의 성장 이야기, 재단의 도움을 받은 장학생 및 가족들의 감사 편지 등이 담겨있

다. 특히 축구선수, 악기연주가 등을 꿈꾸는 예체능 장학생과 시설보호 청소년들이 장학재단의 지원을 통해 성장해나간 이야기도 짜임새 있게 구성돼있다.

장학재단의 활동은 ‘상상 장학사업’과 ‘특성화 장학사업’으로 구분된다. 상상 장학사업은 사회배려 계층 자녀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상상장학캠프 개최 등이 있다. 특성화 장학사업으로는 예체능특기자 장

학사업, 시설보호청소년 자립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장학재단은 이번 백서를 교육청, 주요 대학교, 타 기업 장학재단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KT&G 장학재단 홈페이지(scholarship.ktngtogether.com)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KT&G 장학재단 관계자는 “10년 넘게 지속해온 장학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보고자 첫 번째 백서를 발간했다”며, “국가적 과제인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만 기자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등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730-1번지
2. 분묘기수: 20기
3. 개장사유: 토지이용을 위한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6. 안치대상: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곡리 1003-1 영호추모공원
7. 안치기간: 10년
8. 공고인: 주식회사 원산종합개발 대표이사 김석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번지 48-12
9. 광고인의 대행신고자: 충남 보령시 구서2길 22 (보령현대 장의사)010-5404-6534
10. 신고방법: 신고연고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지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명서류(증복: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를 이 광고로 갑니다.

2019년 11월 7일
위 공고인: 주식회사 원산종합개발 대표이사 김석
장묘이장전문업체: 보령현대장의사

정부대표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11개 기관 15개 재난안전정보 앱을 통합 연계한 재난안전정보 맞춤형서비스

재난안전관리과가 안전디딤돌 앱을 업로드 되었습니다.

안내 광고

광고문의
TEL : (02) 753-1134
FAX : (02) 753-1447
아시아일보 asiailbo.co.kr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1차)

당회사는 2019년 9월 26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10월 4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당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분은 본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주식회사 부곡스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61
홍제메이안상가동 1층 104호
청산인 최병철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1차)

당 법인은 2019년 10월 28일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10월 30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법인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사단법인 한국지적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7,
4층 (용당동, 서운빌딩)
청산인 이남용

생활에 힘이 되는 알찬정보

여기 **많** 있네~!

공작코리아

적색거레 해제공고 (1차)

지급일자 2002-08-09	약속어음 No.04427722	금액 100,000,000
지급일자 2002-08-12	약속어음 No.03097209	금액 200,000,000
지급일자 2002-08-12	약속어음 No.03097210	금액 110,000,000
지급일자 2002-08-20	약속어음 No.04427653	금액 26,780,600
지급일자 2002-08-26	약속어음 No.04427656	금액 100,000,000
지급일자 2002-08-30	약속어음 No.04610708	금액 11,605,000
지급일자 2002-09-16	약속어음 No.04427730	금액 5,510,000
지급일자 2002-09-17	약속어음 No.04427786	금액 3,240,000
지급일자 2002-09-19	약속어음 No.04610281	금액 80,000,000
지급일자 2002-09-23	약속어음 No.04427785	금액 13,000,000
지급일자 2002-09-24	약속어음 No.04427789	금액 4,000,000
지급일자 2002-09-24	약속어음 No.04427788	금액 9,564,718
지급일자 2002-09-24	약속어음 No.04610284	금액 60,000,000
지급일자 2002-09-25	약속어음 No.04610702	금액 100,000,000
지급일자 2002-09-26	약속어음 No.04610705	금액 35,000,000
지급일자 2002-09-30	약속어음 No.04610706	금액 20,000,000
지급일자 2002-10-18	약속어음 No.04610282	금액 63,000,000
지급일자 2002-10-25	약속어음 No.04610286	금액 28,350,800
지급일자 2002-10-30	약속어음 No.04768171	금액 100,000,000
지급일자 2002-11-29	약속어음 No.04610701	금액 100,000,000
지급일자 2003-04-21	약속어음 No.04610289	금액 88,920,913

2019년 11월 7일

각발행일공란 지급자: 한국세티은행 강남영업부 발행인:(주)대성에다테크대표이사 이봉순

취지:위 증권(약속어음)을 소지하신 분이나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세티은행 강남영업부점이나 아래 공고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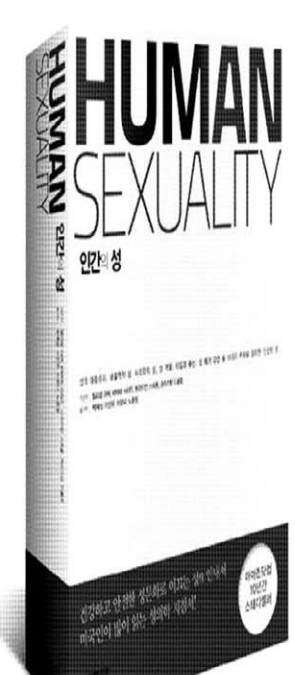
공고인: 주식회사대성메디테크 대표이사 이봉순(010-3792-4688)

내 평생 위와 서 카운슬러!

일반인에게는 성공을 교과서, 의사들에게는 성의학 지침서로 미국 유명 의대교수,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의 임상적 경험과 지식이 총망라된, 아마존닷컴의 10년 스테디셀러다.

홈페이지 www.happysung.org

경향의 책



필라경 이해 외 지음, 박해성 외 옮김 | 782페이지 | 42,000원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성 지침서 국내 상륙!

내 평생 위와 서 카운슬러! 일반인에게는 성공을 교과서, 의사들에게는 성의학 지침서로 미국 유명 의대교수,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의 임상적 경험과 지식이 총망라된, 아마존닷컴의 10년 스테디셀러다.

홈페이지 www.happysung.org

건강 100세의 비결은 즐거운 섹스다!

‘나는 만큼 보인다’고 재밌는 섹스는 삶을 개조한다. 공부하고 연마하면 섹스가 달라진다.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20여 년 간의 임상 경험과 치료 기록을 토대로 쓴 여성클리닉 전문의 박해성의 섹스 이야기를 담았다.

신원빈과 전문의 박해성동행한 여성성학의 경향 지음 228페이지 | 10,000원

홈페이지 www.happysung.org

냉증이어 안녕! 체온을 지켜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온건강법! 몸이 바쁘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1분 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자! 따뜻한 음식이나 차를 마시자.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깊은 잠을 청하자. 이런 순간이 쌓이고 쌓여 나면 몸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면역력은 올라가게 된다.

한희림 박사 지음 (강동 경희대병원한의학부내과장 역임) 지음 | 284페이지 | 13,000원

홈페이지 www.달라네.com

마포구, IoT 기반 주차장 공유 서비스 시범운영

거주자 우선주차장 비는 시간 스마트폰 앱 검색 통해 이용... 주민 수익 얻고 주차난도 해소

마포구가 쉽고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주차장 공유 서비스를 지난 10월 말부터 도입해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IoT 기반의 주차공유 서비스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바닥면에 IoT 무선차량감지센서를 설치해 주차여부를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구는 10월 말부터 차량 유입이 많은 홍대 인근 경의선 책거리 주변의 거주자 우선주차장(9-88구간) 22면에 서 주차장 공유 서비스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공유 방식은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스마트폰 앱(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주차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거주자 우선주차면 배정자는 스마트폰 앱에 자신의 주차면을 등록하고, 공유시간을 설정하면 즉시 공유를 시작할 수 있다.

이용자는 앱을 통해 필요한 공유 주차장을 찾고 간편 결제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공유주차장 이용요금은 30분당 600원, 1일 최대 5,000원이다.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주민은 수익금의 일

부를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제공 받거나 모두의 주차장 내에서 다른 주차면 이용 시 주차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0월 민간 주차공유 사업자인 '(주)모두컴퍼니'와 협약을 체결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 후 합정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서교동, 상암동, 전동 전용구획, 일부 동 구간구획을 포함해 약 1,400면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Io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며 "꼭 필요한 공유경제 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동대문구, 북 페스티벌 개최

도서교환행사, 전시·체험부스 운영 등 프로그램 다채

동대문구가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봉산근린공원 야외무대 광장에서 '2019 동대문구 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동대문구 북 페스티벌은 구민들이 책과 도서관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도서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축제로 2016년부터 이어지며 호평받고 있다.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는 지역 내 공립·사립·시립·학교 도서관 21개과 14개 단체가 참여한다. 축제 기획부터 함께한 도서관과 단체는 행사 당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을 운영해 각 도서관의 특징과 매력을 구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 북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두껍아, 헌책 줄게! 새책 다오!' 행사가 올해도 운영된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책 3권을 가져오면 새 책 1권으로 교환해 준

다. 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의 순환을 장려, 장서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서관 별 주요 부스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접지책 만들기·마음약국 책 처방·북밴드 만들기·책 저금통 만들기 등 각종 만들기 체험과 북박·팝업북 등 책 전시, 사람책 열람 행사, 페이스페인팅, 각종 포토존 등이 준비되어 있다.

부스 운영과 더불어 길놀이 등 전통공연이 진행돼 2019년 북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린다. 퓨전국악공연, 문화예술동아리 축하공연 및 독서회원과 구민이 꾸미는 시낭송, 그림책 구연 등도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을 풍성하게 만든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 달 8일 배봉산 들레길 입구에 개관한 '배봉산 숲속도서관' 옆 광장에서 열려, 축제를 찾은 구민들에게 더욱 새로운 느낌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상관 기자

강서구 '2019 강서구 하모니 페스티벌' 개최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동별 대표 중·합창단 12팀 참여 상여가족·사랑으로·푸르른 날 등 아름다운 화음 한마당 연출

강서구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19 강서구 하모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하모니 페스티벌은 합

창의 대중화는 물론, 음악과 노래를 통해 지역주민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구는 올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모집 범위를 순수 합창단에서 중창단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각 동을 대표하는 중·합창단 총 12팀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한빛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상여가족'을 비롯해 명덕여중아버지합창단의 '광야에서', 강서시니어합창단의 '푸르른 날'까지 참가 연행부터 합창 곡까지 모두 달라 개성 넘치는 공연이 될 전망이다.

또, 행사 중간에는 열린음악회, 팬

■김용수 기자

서대문구, 대입수능일 수험생 긴급 수송차량 64대 운영

신촌·홍제·서대문·아현·가좌·독립문역 등 주요 지점 배치

서대문구가 2020학년도 대입수능 시험일인 이달 14일 오전 수험생 긴급 수송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모범운전자 서대문구지회가 12대, 스카ით택시, 화인택시, 민경운수, 예스택시, 남창흥업, 우리상운 등 관내 6개 택시 업체가 28대를 수험생 무료 수송 차량으로 지원한다.

또 서대문구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이래, 매년 관내 모든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차량에는 식별하기 쉽도록 앞 유리창에 '수험생 수송 지원차량' 표시를 부착한다. 수험생은 누구나 이 차량들을 수능시험 장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또 수험생 편의를 위해 수능 전날부터 관내 마을버스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행 00고등학교 경유' 안내문을 부착하고 하차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12개 반 56명을 수험생들의 교통 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과 시험장 인근에 배치해 '수험생 빈 차 태워주기, 먼저 태워주기, 함께 태워주기'를 안내한다. 이밖에 시험장 주변 혼잡을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구는 수능일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를 위해 수험생 이동시간에 맞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증차하고 개

인택시 부제를 해제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며 "응시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자가용 운행 자제 등 주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에는 명지고, 이대부고, 인창고, 중앙여고, 가재울고, 한성고 등 모두 6개 시험장이 있으며 응시 신청 인원은 3,327명이다.

수능시험은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실시되며,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이상관 기자

관악구, 토닥토닥 마을학교 마을교육 콘텐츠 모집... 20일까지 이메일 통해 접수

관악구가 관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마을의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오는 20일까지 '관악 토닥토닥 마을학교 마을교육 콘텐츠'를 모집한다.

관악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관악 토닥토닥 마을학교'는 마을의 우수한 교육자원 및 교

육콘텐츠를 발굴해 학교 안(밖) 방과후 수업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도는 더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발굴해 어린이·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과 여가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발굴 및 활용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국·영·수 등 교과영역을 제외한 콘텐츠로서 △역사·문화 △전통·예절 △생태·자연탐방 △문·예·체 △인성·인문학 △놀이문화 등 창의·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총 50개 콘텐츠이며, 지원규모는 콘텐츠별 150만원(27개),

200만원(20개), 최대 300만원(3개)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관악구 또는 인접 구(동작, 금천, 구로, 서초)에 소재지를 둔 개인, 단체, 기관, 비영리 법인 등이다.

이메일(hakbumol14@daum.net)로 접수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우리 지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활동

적인 배움을 통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의 재능 있는 주민,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악 토닥토닥 마을학교'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관악구청 교육지원과(02-879-56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수 기자

도봉면허시험장 중소업체 판로지원 위한 아이디어 상품전 운영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시험장 내 공간 공유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홍보 중인 (주)데일리휴먼스(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판로지원과 교육지원과(02-879-5656)로 문의하면 된다.

도봉시험장 내 동반성장 홍보관 이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체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02-2092-0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관 기자

71세 김형수씨

79세 이정은씨

77세 성영희씨

68세 김진영씨

89세 김민정씨

87세 김동현씨

91세 김동일씨

유병장수 시대, 노후 행복을 위한

당신의 행복수명은 몇 세일까지요?

http://100happyliife.or.kr에 접속해서
당신의 행복수명을 진단하고
행복수명을 늘려보세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행복수명지표란? 100세 시대에 맞춰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노후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표입니다

22~24일 제23회 파주장단콩축제

파주, 농특산물 직거래 중심 개최... 개막식 등 의전행사·무대공연은 취소

파주시는 오는 11월 22~24일 파주 임진각 광장 및 평화누리 일원에서 제23회 파주장단콩축제를 개최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근 시군에서 방역대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 축제에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기반으로 개막식 등 의전행사, 무대공연 행사는 취소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중심으로 축제를 추진한다.

파주시는 축제장 진·출입로 소독 시설 설치 및 개인 소독기 비치 등

빈틈없는 ASF 방역 대책을 기본으로 파주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중심으로 행사를 개편했다. 올해 취소되는 프로그램은 개막식, 기념행사(장단콩인 증식, 장단콩 장담그기, 명사배우만들기), 금산리 민요, 경기 민요, 남사당 줄타기 공연, 임진강에술단, 창작 마당극, 윤관 장군 재연극, 공연행 사(착한 콘서트, 고향 페스티벌, 폐막공연), 주민자치 한마당 공연, 불꽃놀이 등이다. 축제의 무대공연은 취소됐지만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꼬마메주 만들기, 가족 사진 무료 인화, 도리깨 콩 타작,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고구마 구워먹기, 와글와글 놀이터, 장단콩 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될 예정이다. 올해 대종피해와 파주개성인삼 축제 취소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대 운영한다.

파주장단콩과 파주개성인삼, 한수위 파주쌀, 사과, 배, 버섯 등 농특산물과 된장 등 장류 가공품, 시골 장

터를 재연한 재래장터를 통해 도시에서 접하지 못한 다양한 품목이 구비된다. 파주시는 문산역에서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도 방문객 동선에 맞게 배치해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

파주장단콩축제는 11월 22일부터 24일 파주 임진각 및 평화누리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진흥과(031-940-5281~3)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 기자**

“내년 예산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

정하영 김포시장, 내년도 중점 사업 관련 현장점검... 주민대표와 간담회도 개최

정하영 김포시장이 2020년 본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5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신도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점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다. 현장점검에서 정 시장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

의 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정하영 시장은 장기동,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등 신도시지역을 순회하며 장기역 내 스마트도서관 설치, 장기동 상암지구 내 도로환경정비, 장기동 단독주택지구 내 도로환경정비,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무대 설치, 구래동 공영주차장 설치,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신도시 내 정류

소 개선 등 그동안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정하영 시장은 장기동,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등 신도시지역을 순회하며 장기역 내 스마트도서관 설치, 장기동 상암지구 내 도로환경정비, 장기동 단독주택지구 내 도로환경정비,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무대 설치, 구래동 공영주차장 설치,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신도시 내 정류

당 부분을 투여했다. 내년에는 신도시 지역의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집중하려 한다”며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신도시 지역 동장을 비롯 통장단 회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들이 참석해 △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위한 이동형 CCTV 추가 설치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대 확대 △트라네체 금빛수로 활용방안 등 지역별로 숙원사업 해결을 건의했다. **■이심택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안양시 2019 기부축제'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기부축제 1억1792만원 모금

행복한끼·마당모금·버스킹 공연 등 안양시청에 사랑 올림 가득

안양시는 이달 1일 개최한 ‘안양시 2019 기부축제’에서 1억 원 넘는 액수가 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현금모금액이 7천666만원에 이르고, 백미와 생필품 등 현물후원이 4천126만원 상당으로 총 모금액은 1억1,79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일반 시민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 8백명 가까운 인원이 축제장을 찾았다. 특히 관내 유망 기업체(인타스, 세광산업, 신흥산업)에서 4천여 만원 상당의 현물을 보냈다.

또 이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상당수의 참여도 잇따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한분 한분들의 작은 정성이 큰 사랑을 이뤄냈다. 기부축제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웃과 함께 행복한 안양’이란 제목으로 안양시청 안팎에서 열린 이날 기부축제는 볼거리로 즐거움을 만끽하는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자유롭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청 구내식당의 기부터치단말기로 점심식사 한 끼 값을 기부하는 ‘행복한 끼’에 공무원들이 참여했는 가하면, 3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펼쳐진 레드키트 포토존, 작품전시 등의 볼거리가 기부금 모금으로 이어졌다. 시청 앞마당을 수놓은 버스킹 공연과 대한제일미용업중앙회의 재능기부가 마련된 네일

아트 부스 역시 많은 이들을 나눈 데 열로 불러 모았다. 신촌어린이집과 성은유치원 원생들은 고사리 손으로 돼지저금통을 기부해 이목을 끌었고, 최대호 시장 부부내외도 축제장을 찾아 관계자와 시민들을 격려하며 모금대열에 합류했다.

또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11명에 대한 시상식이 강당에서 마련됐다. 올해로 6회째 맞는 기부축제는 2003년 한 기업체 대표(고 정재준 삼성펠트 회장)가 안양4동 삼택제지 부지를 시에 기증한 날인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동에서도 자체적인 기부행사를 열고 있다며, 기부의 날을 전후한 모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임을 예고했다. **■박정남 기자**

포천, 25일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포천시는 통계청과 함께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69,939가구(빈집 포함)를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가구, 주택 등 기초정보를 파악해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각종 표준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11월 5일 0시를 기준

으로 모든 거쳐(빈집 포함)와 가구에 대해 주소, 거쳐 종류 등 4개 기본항목을 조사하고, 일부 가구에 한해 빈집 여부, 건축연도, 난방시설, 농림어업 여부 등 8개 특성항목을 방문 조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이조사표 없이 태블릿PC를 통한 전자조사(CAPI)를 도입해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조사원 방문 시 부재 등의 사유로 조사에 응답하지 못했을 경

우 콜센터 상담요원을 통한 전화조사(CATI, 080-700-2020)도 가능하다.

서정아 홍보전산과장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자가 사실대로 응답해야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수립이 가능하니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홍보전산과(031-538-2085)에 문의하면 된다. **■유홍열 기자**

고양시청소년재단, 1930 Happy 프로젝트

고양시 수험생·19세 청소년 대상 진행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1월 1일 행신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입시, 학업, 진로 등 치열한 경쟁에 시달렸던 19세 연령의 고3·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통해 행복한 30일을 만들기 위한 ‘1930 Happy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930 HAPPY 프로젝트’는 수능 전 학교로 찾아가 음료서비스와 학교교사, 선배, 후배, 학부모님들의 응원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마음충전 이벤트, 수능 당일 화정역광장 및 일산문화공원에서 버스킹 공연과 체험, 거리상담이 진행되는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수능 이후에는 메가박스 백석점에서 고3·수험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영화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신고등학교 교사

는 “환갑 예민한 시기에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작은 응원과 격려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위로와 행복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농곡교 교사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자치단 특별한 이벤트가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다”며 “누구보다 빛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고양시청소년재단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운희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벤트 행사가 아닌 19세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10대의 중요한 마지막 순간을 지역사회가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며 “아직은 관내 학교의 수험생들



‘1930 Happy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모든 수험생과 청소년들에게 작은 위로와 행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마음충전 프

로젝트는 관내 고등학교의 사연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곡교, 일산국제전벤션고, 무원고, 주엽고, 화수고, 백양고, 경기영상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만희 기자**

안성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라온하제’ 성료

공연마당·나눔마당·장기자랑 등 펼쳐

2019 안성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네 번째 장 ‘라온하제’가 11월 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공도중앙어린이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다중요를 밀치고 파란하늘을 열어준 이날 ‘공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라온하제’라는 주제로 열린 청소년 어울림마당에는 20개 청소년 동아리들을 공연마당, 체험마당, 나눔마당 등을 60여명의 관람객에게 펼쳐 보이며, 청소년들의 희망을 이야기 했다.

특히, 이날 모든 행사를 기획한 (사)한국청소년복지지원회 안성지부 공도위원회(회장 김장연) 회원들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축제로 진행됐으며, 즉석 장기자랑 무대가 피날레로 장식되어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상품권을 수여했다.

또한 해나&타투, 가방만들기, VR 만들기, 즉석사진찍기, 립만들기, 보석비즈, 필라비즈, 전통팔찌 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정성이 담긴 16개의 체험부스와 오랜 연습이 느껴지는 해동검도, 댄스동아리와 태권도의 아름다운 시범, 성인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인 동아리들의 공연에 이어

염정미, 최성운 등 초청가수의 신나는 공연무대와 청소년 장기자랑 등 총 3부로 펼쳐졌다.

행사를 주관한 주민 김 모씨(주부 38)는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됐다”며 “공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니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초대해준 지인에게 만족감을 전했다.

행사 주관을 함께한 한국청소년복지지원회 공도위원회 김장연 회장은 “청소년들이 즐겨워하는 일들에 대해 무엇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축제 일가를 고민하고 준비한 시간이었지”며 “여러 날 준비한 동아리, 응원하는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최상의 날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한 관

계자 및 내빈으로 참석한 김학용 국회의원, 유광철·유원형 시의원, 황은성 전 시장, 김보라·김의범 전 도의원, 이영찬 전 시의원 등 정지권인사와 안성예총 이상현 회장, 민족통일 박석규 회장, 김선용 안성의용소방대장, 장애인협회 정도근 회장, 김유산 공도약국 대표, 왕미영 경기도문자가협회장, 이정경 안성피아노협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 및 관람객에게도 감사인사를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안성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청소년복지지원회 안성지부(지부장 김영식)가 주관하는 ‘2019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찾아가는 어울림마당(안성고 편)’과 ‘폐막식 회향’ 등을 남기며 청소년들의 젊을 열기를 계속 이어간다. **■편종국 기자**

며, 특히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연계하여 중고 PC 나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유디치과 고광국 원장은 “이 PC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보화시대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한국IT복지진흥원과 함께 나눔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열

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정임 장애인복지과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키워나가고 있는 현장에 PC가 지원되어 감사하고 기쁘다. 남양주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나눔의 손길들이 꼭 필요한 곳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복선 기자**

유디치과 & 한국IT복지진흥원, 장애인단체에 PC 전달

남양주시(시장 조광환)는 지난 5일, 유디치과와 한국IT복지진흥원이 후원하는 사랑의 중고 PC를 장애인 단체에 설치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사랑의 PC 나눔’은 유디치과와 한국IT복지진흥원에서 중고PC를 후원하고 설치까지 지원하는 사

업으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4개에 총 30여대의 중고 PC가 전달됐다.

유디치과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하거나 물품을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



연천군새마을회관 주차장 부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을 담고 있다.

연천군자원봉사센터-연천군새마을회

자원봉사 집중기간지원사업 김장나누기 행사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화)에 연천군새마을회관 주차장 부지에서 경기자원봉사센터지원 사업인 ‘자원봉사 집중기간지원사업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연천군새마을회원들이 직접 만든 김장김치를 연천 관내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등 소외계층 260가구 대상에 10kg씩 전달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위해 연천군새마을회(회장 왕영관)와 연천군새마을부녀회(회장 이춘애) 회원 70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그밖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 등을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민들기에 동참했다.

연천군자원봉사센터 강정식센터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김장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며 무거운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또한 이번 사업이 진행된 계기에 대해 “무엇보다 우리 센터에서 만든 김장김치를 기다리실 많

은 이웃을 떠올리니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기존처럼 한 번에 많은 봉사자들이 모여 진행하지 않고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약 5회에 걸쳐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많은 봉사자분들의 노고로 진행된 이번 사업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해 센터장의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전달됐다.

또한 연천군새마을회 왕영관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협업체로 함께 사는 지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8일~22일(21일 없음) 4일간 약 25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연천 관내 800가구 대상에게 전달될 김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홍열 기자**

하남-中 유산시, 청소년 교류 협력 증진

위례고교-제일고교 자매학교 체결... 공동교육프로젝트 수행·교수학습자료 교류

하남시는 6일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유산시(中國 乳山市)에서 우호협력 증진 및 자매학교 체결 등 청소년 교류 협력 논의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위해 유산시는 김춘용부시장, 곽송강(郭崇江) 제일중학교 교장 등 5명의 방문단을 꾸려 하남시를 찾았다.

이날 시장실에서 김상호 하남시장
을 비롯해 국제화추진협의회 국승현
부회장, 백남홍 고문, 한상영 중국본
과위원장 등 위원 5명은 유산시 방문
단을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김상호 시장을 비롯한 유산
시 방문단은 위례고등학교(하남시
위례순환로 323)로 이동하여 위례고
(교장 신현명)와 유산시 제일중학교
(교장 광송강) 간의 자매학교 체결식
을 가졌다. 이번 자매학교 체결은 양
교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과 의사소

통능력을 증진 시키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교육, 문화, 친선 목적의 학생과 교사의 온·오프라인 상호교류 ▲공동교육프로젝트 수행을 포함한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교류 ▲양측 당사자들의 공동 결정에 의한 기타 교육관련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자매학교 체결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유산시에서 방문하였을 때 청소년교류에 합의했고 6월에 유산시 제일중학교를 추천해 주신 것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의 위례고와 유산시의 제일중학교의 노력의 결과로 오늘 자매학교 체결식을 갖게 되게 됐으니 기쁘다”며 “이번 자매학교 체결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첫

줄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
 매학교 체결식을 가진 방문단은 최
 근 친환경복합시설로 각광받는 하남
 유수온타리마을 방문하여 이곳 지하의
 우수·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한강과 검단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
 망대에 올라 하남의 자연경관을 만
 곁했다. 이외에도 미 리를타시 조형
 물 유스(YOUTH)(2017년 12월 설치)
 와 말레이시아 사찰람지 조형물(꽃
 모티프 제작된 기념주화)(2019년 9
 월 설치), 평화의 소녀상(2019년 8월
 설치)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남시 국제

자매도시공원(하남시 신장동 56-15)과 스타필드를 견학하는 일정을 가졌다. 오는 7일 유산시 방문단은 한국에너지선교고등학교(하남시 검단산로 233)와 하남시평생학습관(하남대로 732)을 차례로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는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하남시와 유산시는 지난 2005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이번까지 총15회(하남→유산:5회, 유산→하남:10회)의 교류를 추진하며 우애를 다져오고 있다. **■조병익 기자**

지역발전·직원 복지증진 협약 체결

의정부시-(주)엠피지오

의정부시는 11월 5일 (주)엠피지오와 지역 발전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엠피지오는 의정부시에 본사를 두고 2002년 설립된 기업으로, MP3와 PMP를 시작으로 태블릿PC, 모바일폰, 차량용 블랙박스 등 멀티미디어 기기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전문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이상수 (주)엠피지오 대표이사는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에 따라 양측은 복지증진 교류, 홍보 활동,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력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열피오 측은 지역 공무원에 위한 전용 홈페이지 개설과 교육융합습기·태블릿PC·노트북·전자사전 등의 제공 합의 혜택을 제공한다. 안병용 시장부시장은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협약에 나서 준 열피오 측에 감사의 편지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양희 기자**

평택,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평택시가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2월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난 5일 영상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체납액에 대한 정리 방안을 모색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 및 중점 추진대책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

인본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징수를 제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종호 관택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해마다 새로운 체납액이 이월됨에 따라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체납액 누증은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부과된 세외수입은 올레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핑택시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
 아 채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채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일
 시납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며, 고
 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
 고질적 채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
 류 등 강력한 채납처분을 실시할 계
 획이다.

■김진태 기자

수원교육지원청, 9일 수원 경기꿈의학교 성장나눔발표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19 수원 경기꿈의학교 성장나눔발표회'를 오는 9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교는 마을로, 마을은 학교로' 협력하는 미래교육'을 부제로 2019 경기꿈의학교 수원 지역 활동내용 및 성장사례 공유를 위한 만남과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꿈의학교 참여 학생들의 사

회로 ▲오케스트라, 합창, 각종 퍼포먼스 공연 ▲다양한 체형 및 전시 부스 ▲토코콘서트 3개 프로그램으로 50개 꿈의학교가 참여해 4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토코콘서트에서는 황대호 경기도의원과 교육요청 장학생, 꿈의학교 참여 학생, 학부모, 운영자가 패널로 참여하여 학부외교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

늘 예정이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공
 의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폭 넓은 교육생태계가 구축되고 마
 을과 함께 꿈꾸는 미래교육이 실현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이 다
 양한 경험과 수 실현을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
 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김진태 기자

용인, 장애인 피해 방지 위한 성인지 교육

3개구 장애인복지관서... 관련 지식·위기상황 대처법 등

용인시는 5일부터 12월17일까지
처인·기흥·수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 교
육을 진행한다. 장애인이 성희롱·성
추행·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성에 대한 지식과 사
처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시는
우선 3개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
는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
한 뒤 다른 시설 장애인 등으로 교육

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은 바로서기 성문화·인권교육센터 강사들이 맡아 인지기능이 낮은 장애인을 위해 그림카드나 인형 등을 사용해 개인 위생 관리·난민의 차이·성문화와 성윤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6회에 걸쳐 30명의 발달장애인을 중증·최중증으로 나뉜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NH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NH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지부장 남상식)는 지난 6일 동두천시청을 찾아 동절기를 맞아 관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자, 김장김치(10kg) 30박스를 기탁했다. NH농협중앙회는 꾸준히 동두천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

으로, 이날도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배추가격이 예년보다 비싸서 걱정하시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장김치를 기탁했다.

이날 남상식지부장과 농협 직원들은 동두천시청을 직접 찾아 준비한 성품을 전달하며 “태풍으로 피해가 많아,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행복나눔 봉사단 그림이야기 전시회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지회장 윤우태) 소속 행복나눔 봉사단 '그림이 야기 전시회'가 6일 노인회지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행복나눔 봉사단이 관내 요양원에서 치매 인지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성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시회에는 김상돈 의

양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자원봉사단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사 및 축사, 경과보고 및 영상 상영, 테이프 커팅 및 관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 7명으로 구성된 행복나눔 봉사단은 그동안 관내 요양원을 방문해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프로그램과 함께 어르신들의

화성, 관내 청소년 대상

아침밥 먹기 캠페인

화성시는 관내 청소년 대상 아침
밥 먹기 캠페인을 통해 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아침밥 먹기

활상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6일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발안중학교와 봉담중학교에서 공직자, 생활교육화성네트워크 및 로컬푸드 생산자들이 참석, 아침 먹거리로 우리쌀로 만든 떡, 사과(로컬푸드) 1.500인분을 배부하고 사과 먹고 예뻐지자, 아침밥은 보약입니다, 건강한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동화책 읽어주기', '그림을 통한 이야기 꾸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행복나눔 봉사단원들이 치매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함께 스케치한 작품과 캐리커처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박정남 기자

아침은 내게 등의 피켓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은 두뇌회전을 높이고 비만율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바른 식습관이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인석 기자

(주)오래뜰
Oredde Corporation

Korea
Health
Supplements
Awards
2019

2019 중앙일보
건강기능식품대상 수상

건강
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Traceability
이력추적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식품의약품안전처

KHSA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상호번호 : 190410107

런칭기념

3개월분 + 1개월분
88,000원

6개월분 + 2개월분
148,000원

남자를 위한 활력 충전! 5중 복합 건강기능식품 **울트라포맨**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아연은 체내 200개 이상 효소의 구성성분으로 대사과정이나 반응조절에 관여하며 RNA/DNA와 같은 핵산의 합성에 관여하므로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관여하고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쏘팔메토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쏘팔메토는 대서양 해안에서 자생하는 700년 생명의 나무자신의 열매로 기름과 해초에 강하고 불에도 거의 파괴되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 원료입니다.

셀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셀렌(셀레늄)은 체내 효소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글루타티온 과산화효소, Thioredoxin 등의 성분으로 존재하며, 체내에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항산화하고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2(리보플라빈)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여러가지 효소반응에 관여하는데, 특히 열량 대사에 중요하며 세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물질대사에 참여합니다.

비타민D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는 지용성비타민으로 세포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항산화 물질로서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분들께 관해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활력이 필요하신 분 ●정상적인 면역기능이 필요한 남성 ●과도한 업무로 지치거나 힘든 분 ●과격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분 ●활성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분 ●건강한 신진대사를 원하시는 분

●체력관리가 필요한 분 ●시원하게 소변이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노화로 인해 전립선 건강이 나빠진 남성 ●노후 후속배이 남은 노년기 드시는 분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 ●오래 앉아 계신 분 ●전립선 건강관리가 염려되는 분

주원료 : 아연, 비타민B2, 비타민D, 쏘팔메토, 셀렌(셀레늄)
부원료 : 홍삼, 마카, 옥타코사놀, 은행잎, 산수유, 마늘유, 비수리, 오자
섭취량 : 1일 1회, 1회 1캡슐 (500mg)

주문전화 **080-790-5000** 온라인주문 **www.arambi.kr**

하나금융그룹 본사, 인천 서구 유치 확정

2020년 1월 설계 착수해 인허가 절차 진행… 2021년 초 착공, 2023년 준공 목표

인천 서구는 6일 하나금융그룹 본사의 서구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현 서구청장이 드림타운(하나금융그룹)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 합영주 부회장을 직접 만나 하나은행의 서구 구공고 지정 당시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약속한 하나금융그룹 본사의 서구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 확정했다. 합영주 드림타운 운영위원장은 하나금융그룹 본사 이전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구체적 설계에 착수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2021년 초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었다. 서구로 이전하는 하나금융그룹본

사(HQ)는 지주 및 주요관계사의 글로벌, 디지털 관련부서가 집중된 그룹 헤드쿼터 개념으로, 하나금융그룹의 디지털·글로벌 시장 공략의 최전진 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사 규모는 당초 7,000평에서 많게는 3만평까지의 48층 규모(예정) 초대형 건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인원은 당초 계획한 7,000여명에서 관계사까지 포함한 상주 및 연수인구 1만7,000~1만 8,000여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지사 관련 거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드림타운이 완공되면,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

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2014년부터 청라 국제도시 부지 24만6,671㎡에 금융·디지털·글로벌 기능을 집적화 한 대규모 금융타운을 추진해왔으며, 1단계로 2017년 6월 통합데이터센터를 준공해 금융IT인력 1,800명이 입주했고, 2단계 사업으로 지난 5월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완공해 오픈했다. 3단계 사업에 대해 하나금융그룹 드림타운 운영위원회는 사업구조 및 이전 규모, 형태에 대한 내부검토를 통해 본사 이전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2018년 10월 인천 서구 구공고로 지정 당시, 서구 취약계층 지원, 구민 복지·문화수준 향상,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서구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에는 하나금융IT가 IT교육사회공헌 하나금융코딩캠프를 진행했고, (주)하나은행은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출연금과 대규모 지역사회 협력사업비를 지원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합영주 부회장(드림타운 운영위원장)은 “서구 청라에 1단계 하나금융TI, 2단계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이어 3단계 본사 이전까지 확정지어 드림타운을 해외지사와의 거점망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청라시대를 열겠다”며, “드림타운을 통해 일자리창출,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현 서구청장은 “하나금융그룹 본사를 서구에 유치 확정하게 되어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을 포함한 서구의 55만 주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가 스마트에코시티를 꿈꾸는데, 하나금융그룹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서구와 상생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배용환 기자

동구, 주민자치회 발대식 개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하고 자치계획 수립

동구는 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출범을 알리는 동구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구는 올해 주민자치회 실시·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동(화수2동, 금창동)을 대상으로 위원 모집 및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총 73명의 위원(화수2동 33명, 금창동 40명)을 선정했다 이날 발대식은 △축하공편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언문 낭독 △주민자치회 출범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다. 발대식 이후 주민자치회는 분과

구성을 하여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의결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구청장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재 2개 시범 동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동도 2020년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11개 동 모두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득 기자

인천시 인터넷신문 ‘아이-뷰(i-View)’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

인천시 소통매체인 인터넷신문 ‘아이-뷰(i-View)’ [(enews.incheon.go.kr)]가 국가공인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을 받았다. 인천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온라인사이트 굿콘텐츠 인증평가 제도에서 인터넷신문 ‘아이-뷰(i-View)’가 ‘굿콘텐츠 서비스’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은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 서비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평가해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터넷신문 ‘아이-뷰(i-View)’ [(enews.incheon.go.kr)]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매체로 2005년 창간해 매주 2회(화, 목요일) 인천시 주요소식, 인천관광, 역사, 문화, 인천사람들 이야기 등을 담아 뉴스레터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다. ■배용환 기자

인천시,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응급잠자리 제공·응급구호 물품 배부·무료검진·긴급생계 지원 등… 11월부터 내년 3월말 동절기 보호대책기간 운영

인천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주거취약계층(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선다. 겨울철 한파 등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 노출 시 동사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거리 노숙인 156명, 노숙인 시설 5개소 329명, 쪽방생활자 214세대 290명 등 주거취약계층 총 775명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해 이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한다. 시는 2019년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동절기 보호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중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 경찰, 소방, 군·구, 유관시설을 연계한 시·군·구에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응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 활동을 통한 상담보호와 시설입소 및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방한복 등 응급구호 물품을 배부하는 한편, 긴급생계, 주거지원 등 제도권 보호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난날 28일에는 주거취약계층(노숙인 등)의 위기지원과 보호를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국도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내일을 여는 자

활센터 등 총 4개기관이 합동으로 부평역, 인천터미널, 주안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실시해 총 63명의 대상자에 대해 동절기 임시 주거시설 등을 안내 하는 등 거리 노숙인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7일에는 쪽방 주민 214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등 동절기

대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인천의료원, 보건소, 119구급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며, 특히, 인천의료원에서는 찾아가는 동절기 무료검진을 홀수 달 넷째주 목요일에 부평구 괴골공원에 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한다. 권오훈 시 자활중진과장은 “동절기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한파와 겨울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배용환 기자

미추홀구, 5년간 인천에서 유일하게 산불 無

주민들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와 산불예방 행정 효과 톡톡

미추홀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산불이 없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와 산불예방 행정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는 최근 5년간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년 간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인천에서 미추홀구가 유일하다. 구에는 인천의 대표 산인 문학산과, 현충탑이 있는 수봉산, 인천도호부청사가 자리한 승학산 등이 있다. 구는 가을철마다 산불방지 예방 캠페인과 예방장비 점검, 설치 등을 해왔다. 주요 등산로에 홍보현수막을 설치

하고, 주민들과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 인력도 보강했다. 또 산불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진화장비인 등짐펌프, 갈퀴, 삽 등을 문학산과 승학산 등 주요 등산로에 배치했고, 인천미추홀구소방서와 협조해 소화기 합 11개도 설치했다. ■김영득 기자

부평구 갈등관리 역량 전국 ‘최우수’

부평구의 갈등관리 역량이 전국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속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역량과 속의기반 주민참여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 전국 특·광역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협력·갈등관리 분야와 속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학계와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전국 지자체 사례들의 추진체계, 지자체 노력도, 갈등관리 기법 활용,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1차 서면심의를 통해 2개 분야에서 각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와 우수, 장려상이 수여됐다. 부평구는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

체계 운영’을 주제로 사례발표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공공갈등 관리라는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사전진단을 통한 예방행정, 창의적 해결을 위한 공직자·전문가·주민의 대화와 참여 등 체계적인 갈등관리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례발표에 나선 강경하 갈등관리팀장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예방행정,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을 통한 지역 내 갈등관리역량의 자변 확대를 강조하며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의 성과를 소개했다.

구는 올해 갈등사전진단을 실시해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단계별 잠재된 갈등요소 사전 파악하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갈등영향 정도 및 해결 가능성을 분석해 적절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공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갈등관리를 꾸준히 이어왔다”며 “지역의 각계 구성원들과 공감하는 정책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용환 기자

강화군 음식점 6개소 위생등급 ‘좋은’ 획득… 인증업소에 출입검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강화군은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6개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2019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6개소로 △선창집 장어구이 △서울매지 1986 △쉐프의 부엌 △용흥궁 식당 △찬우정 △talkrhy(토크라피)이다.

위생등급제는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3단계(매우우수, 우수, 좋음)로 나누

어 지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강화군은 위생등급을 인증받은 업소에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및 배너 제공, 위생용품 지급,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계양구,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수상

계양구는 6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경찰청장 표창(지자체 등 공공기관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은 민간의 치안활동 참여확산 및 자발적 참여의지를 견인하기 위해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개최하는 행사로써 2016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계양구는 계양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CPTED 기반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확대(경인여대-계산역 주요 통학로 환경개선), CCTV 화질 개선 및 신규 설치 등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CCTV를 통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관내 공원의 심야시간 군집, 배회 등 이상행위자 발견 및 주요 교량에서의 자살 행위 사전감지 등 사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최초로 선정되어 스마트 안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앞으로도 구는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계양’을 목표로 구민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용환 기자

연수구, 제28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연수구는 6일 오전 11시 동춘역 이마트 광장에서 제28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는 연수구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서부지부 그리고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녹색이머니회, 안전보안관,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 등 민·관 합동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가스를 건조기 산불 예방수칙 △가을철 유행성 전염병 예방 수칙 △고질적 7대 안전 무시관행의 근절을 위한 안전신문고 앱 활용법 △지진 안전 의식 고취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김영득 기자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 나서

중구는 지난 4일 태풍 피해를 입은 관내 하늘어린이집에 대해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 여성보육과, 안전관리과, 안전관리단 자문위원 2인,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가 참석했고, 회의 후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연이은 태풍으로 어린이집

외벽이 탈락하고, 실내 물탱크의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민원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집 시설물은 전반적으로 안전했으며, 탈락한 외벽은 이번주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득 기자

목포시,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탄력... 대양산단 분양에 획기적 전기 마련

목포시 대양산단 및 목포신항 일대가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포함됐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역으로, 에너지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과 연구 개발 등을 집중 지원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포 대양산단 과 신항,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전남(공동신청) 지구를 최종 대상으로 6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융복합단지 지정은 민선7

기 출범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독심 있게 추진해 온 김종식 시장의 선제적인 노력에 박지원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한 뜻으로 협력해 이룬 쾌거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 된다.

대양산단이 융복합단지에 포함되면서 목포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산단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구 내 에너지 특화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각종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 특히, 한전 등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에너지 기업과 관련 기자재·부품 생산업체들의 대양산단 입주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김종식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서남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에 발 맞춰 목포신항은 서남권 신·재생에너지 거점항으로,

신항 배후부지 및 대양산단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부품의 생산의 거점으로 각각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식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우리 시의 미래 전략산업이다. 이번에 목포가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대양산단 조기 분양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무안군의회,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성명

광주시 안하무인격 군 공항 이전 추진 행태 강력 성토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6일 오전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시의 군 공 항 이전사업 추진 행태를 강력 성 토했다.

최근 광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군 공항 이전 예비 후 보지역 중 유독 무안 만을 18차례 가랑 방문한 것과 군 공항 이전과 더불어 무등산에 위치한 방공포대 및 서구 마루동의 공공 탄약고까지 함께 이전할 수 있다는 주장에 기인 해 이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안군의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광 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추진 배

경 및 사업 방식, 추진 절차 상의 문제점 등 군 공항 이전의 특수성 과 무안군의 입지 상 불가함 등을 이유로 수차례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위와 같은 광주시의 안하무인적인 일방적 사업 추진 행 태 및 군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 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 다.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이자 무안군의회 부의장인 박성재 의원은 “군공항의 무안 이전 반대 서명에 무안군민의 과반수 이상인 4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

며 “군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 역은 우리 군의 관광자원이 집적돼 있고 무안국제공항 및 항공특화산 업단지 등 앞으로 무안군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 지역이며 우리 군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곳으 로 무안의 미래를 전투비행장과 바 꿀 수 없다”며 광주 군 공항의 무 안군 이전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 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주민들의 의 견을 무시한 채 광주시와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일방 적으로 선정해 졸속으로 추진한데 우려해 지난해 11월에도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결사 반대 결의 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20 고흥 방문의 해’ 지정·운영

입장료 할인·숙박비 지원·경품 제공 이벤트 등

고흥군(군수 송귀곤)은 2020년을 ‘고흥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6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흥 방문의 해’는 올해 말로 예정된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을 계기로 고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추진 동력으로 활용해 연중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하고 휴양·관광도시 고흥관광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유자·석류축제 개막일인 지난 10월30일 ‘2020 고흥 방문의 해’ 개막식을 갖고 대외적으로 선포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2020 고흥 방문의 해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세부 실행계획은 일명 ‘고흥으로 오세요(530, 5 전라+30 핵심과제)’ 프로젝트로 △방문의 해 특별 이벤트 △고흥관광 전략적 홍보 마케팅 △고흥관광 콘텐츠 육성 △고흥관광 인프라 확충 및 수용 태세 확립 △전국 단위 초청(연계)행사 등을 담은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입장료 할인, 숙박비 지원,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지원을 검토 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는 관광 홍보의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온·오프라인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고흥군은 2020년을 ‘고흥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6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20 고흥 방문의 해” 운영으로 2028년 관광객 1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관광객 유치 시스템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

를 밝히면서, 2019년 남은 기간 지역 관광 관련 사업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류영택 기자

보성군, 국악 특화 프로그램 운영

보성소리 계보 잇는 명창들 총 출동

보성군은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보성소리 계보를 잇는 명창들이 총 출동해 서편제 변향 보성소리를 알리는 국악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7000여 명의 관객 및 주민들이 참여해 서편제 보성소리를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간 진행된 ‘우리 가락 얼씨구 학당’은 명창들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가 보성소리 교육했다. 총 144회 동안

4320여 명에게 우리 가락을 알렸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고장 문화를 보전·계승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관소리 성지에서 진행된 보성소리의 향연 ‘너울’(토요상설·예술체험교육)에는 지역 예술인, 전통 계승 명창, 소리축제 대상 수상자 등이 대거 참여해 국악의 진수를 펼쳐 보였으며, 800여 명(총 15회)이 관람 및 예술 체험 교육에 참여했다.

‘명창들과 함께 떠나는 보성소리 여

행’은 9월부터 운영(47)해 광주, 순천, 목포, 남원 등에 국악 애호가 100여 명이 참여해 관소리 명소를 탐방하고, 구성된 보성소리를 체험하고 돌아 갔다.

특히, 매년 진행되고 있는 서편제 보성소리 체험 프로그램에는 2000여 명이 참여해 전문 예인들로부터 국악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오후 3시)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22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대통령상 수상자 공연이 예정돼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문화관광과로 문의(061-850-5205)하면 된다.

■박천석 기자

구례군, 양봉 신 기술

실용화 컨설팅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홍보관에서 지역 양봉 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양봉 신 기술 실용화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변화하는 양봉 기술 향상에 신속히 대처하고 고품질 유기농 양봉 산물의 대량 생산 및 실패 없는 꿀벌 관리 요령, 겨울나기 보온상자 보관법, 프로폴리스 채취, 응애 구제, 항생제 오·남용 사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겨울철 봉군 관리 시 노지에서 겨울나기 포장을 할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아 습기와 냉기가 벌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하며 찬바람이 몰아치는 지형에 벌통을 두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양봉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화분, 로열젤리 등은 인체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개선 작용에 효과가 있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천연 항생제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정정 지역 구례에서 기른 우수한 꿀벌을 양봉농가의 신 소득원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전남테크노파크-코맥스카본, 목포 세라믹산단 분양계약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는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와 목포시 지역경제과와의 공동 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5일 (주)코맥스카본(대표 서규식)을 전남 목포 세라믹일반산 업단지 내 1200여 평의 분양계약(10억)과 시설 투자(30억) 등 약 40억원 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코맥스카본은 경기도 안성시 에 소재한 기업으로 1994년 설립돼, 50여 명의 고용 인력으로 반도체 제

조 장비용 그라파이트 부품을 생산, 연간 약 204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다.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 원센터는 (주)코맥스카본을 성장사다리 투자 유치기업으로 판단하고 2010년부터 입주공간과 시험생산공 간 등을 제공했으며, 세라믹산업 생 태계 조성사업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과 센터에 구축된 다양한 시생 산장비 활용 지원을 통해 각종 신제 품 개발을 위해 지원해 왔다. 그 결

과, 대기업 수요 반도체 생산용 부품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대돼 본격적인 양산 체계 돌입을 위해 이번 분양계 약이 체결됐다.

(주)코맥스카본은 내년 상반기 양 산단지 가동을 목표로 약 40억원에 이르는 공장 건설 및 장비 구축을 계획 하고 있으며, 목포공장에 20여 명의 장년 일자리 마련을 비롯, 오는 2025년에는 총 1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광주시 남구, 22일까지 우수 사업 8건 대상 온라인 투표

주민 70%·공무원 30% 평가 반영... ‘베스트 5’ 선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올 한해 선bio인 각종 구정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반영, 2019년 올해의 구정 베스트 5를 선정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이 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남구청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남구 엠보팅’을 통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투표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

민들은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남구 엠보팅’을 검색해 관련 앱을 내려 받은 뒤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기존에 남구 엠보팅에 가입해 있는 주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주민 평가 70%와 공무원 평가 30%를 반영해 구정 발전 및 주민 복지 등 각종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정책 5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투표 대상에 오른 정책은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수영선수권 대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10분 안에 만나는 우리 동네 생활 SOC 복합화사업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남구 365스마트 도서관 개관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방역지도를 활용한 모기 제로화 구축 등이다.

남구는 주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바탕으로 11월 말 구정조정 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의 우수성 및



영암매력한우 브랜드 경영체인 영암남주농협이 지난 5일 국내·외적으로 핵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벤더업체인 (주)CY글로벌과의 유통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유통 경쟁에 뛰어들었다.

영암매력한우, 전국 브랜드로 발돋움

(주)CY글로벌과 유통계약 체결... 대형 유통망 확보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매력한우 브랜드 경영체인 영암남주농협이 지난 5일 국내·외적으로 핵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벤더업체인 (주)CY글로벌과의 유통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유통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날 계약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와 조정기 의장, 이재면 영암남주농협 조합장, 그리고 롯데그룹 최현범 명예 회장 및 CY그룹 김태화 사장과 민경천 한우자조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는 지난 5월, 영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체결한 군과 CY그룹의 상생 협력 업무협약의 결과이다.

협약 이후, 롯데슈퍼 입점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 간담회를 거쳐 7월24일에는 전국 68개소 롯데슈퍼 매장에서 매력한우 입점을 기념하기 위한 토크행사를 개최했으며, 본격적인 (주)CY글로벌과의 유통계약을 위한 롯데슈퍼와 (주)CY글로벌의 직매입 거래계약 그리고 군과 (주)CY글로벌과의 유통망 입점계약이 체결되면서 유통망 입점 준비 태세를 갖췄다.

영암매력한우는 청정 지역인 월출산의 맑은 공기와 150m 안반식 지하수, 양질의 사료를 먹여 사육함으로써 고기가 지방이 적고 육질이 연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2012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1위)을 수상하는 등 각종 품질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해 품질을 입증해 왔으며, 올해는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선정돼 품질의 우수성을 확고히 굳힌 바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매년 급증하는 한우농가와 사육 두수로 인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영암의 자랑 매력한우가 유통 전문 벤더업체인 (주)CY글로벌과의 유통계약을 통한 다양한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우 이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 입점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등 27개 사업에 82억원을 확보해 농가에서 고품질 영암한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성적 쑥↑

경북, 이철우 도지사 취임이후 첫 상위권 진입… 재정인센티브 10.3억원 확보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둬에 따라, 재정인센티브 10.3억원을 교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억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써, 민선7기 출범이후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변해야 산다’는 기치 아래 도(道)와 시군 직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조직에 ‘새바림’ 활력과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한 결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중앙부처가 평가하는 것으로서,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는 합동평가의 중요성과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량지표 목표달성률과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 비율에 따라 17개 시도에 차등 지급된다.

그간 경북도에서는 국민체감형 결과지표로 구성된 지자체 합동평가의 성적향상 방안으로 시군평가에 합동평가 지표를 전면 적용하고, 도 분청 부서평가에도 합동평가 성적을 반영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道)와 시군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년도 주요 성적

가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7기 출범이후 생산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시군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보유한 보건정책과에서는 92% 목표를 달성하는 등 경북도 전체 목표달성도에 큰 기여를 했다.

울진군 치매공공후견 사업

피후견인과의 연계 준비 중

울진군은 가족이 없는 치매노인의 경제적, 법적 권리를 위하여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며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며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며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며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동 시민문화활동가 인력양성 사업 ‘나도 강사’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문화강좌는 시민 문화활동가 양성지원사업 ‘나도 강사’로 선정된 시민 강사 5인이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시민 문화활동가 양성지원사업 ‘나도 강사’는 문화 관련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의 준전문가, 관련학과 전공자 및 관심이 있는 시민으로 스스로 강의를 구성·기획해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의 재능이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강좌 유형은 강의형과 프로그램 체험형이 있다. 강의형은 ▲지역 문화 자원의 스토리 활용법 ▲중년 여성들의 자기계발 강좌로 2회차가 진행된다. 프로그램 체험형은 ▲마술하는 테드의 마술 수업 ▲한국 전통 인형 옷 만들기 ▲작업치료사 직업 체험으로 강좌별 4회차 진행된다.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강형 강좌부터 소품을 활용한 클로즈업 미술 수업까지 다양한 강좌를 즐길 수 있다.

‘나도 강사’ 시민문화강좌는 수강료는 무료이며 안동축제관광재단 동편에 새롭게 재단장된 ‘안동 문지방(문화지식공유방)’에서 진행된다. 안

청송양수발전소, 노사합동 지역 환경정화운동에 앞장

행락객 붐비는 주왕산국립공원 쓰레기 수거로 지역 상생 실천

한국수력원자력(주) 청송양수발전소(소장 이정호, 위원장 장승환)는 6일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勞經不二’의 기치 아래 청송양수발전소 노동조합 주도로 주변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든 주왕산국립공원은 등산객들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바 각종 쓰레기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송양수발전소 직원 30여명은 주왕산국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제1폭포까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등산코스에서 비닐, 담배꽂초, 음식물 등을 수거하여 청송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깔끔한 인상을 남겼다.

청송양수발전소 장승환 지부위원장은 “그간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관심과 사랑이 금일 행사로 조금이나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청송양수발전소 직원들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마 환원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감장담그기, 연탄배달과 같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성달 기자

의성 이웃사촌 청년예술캠프 운영

안계상회 2차 무료 전시… 다양한 예술체험프로그램도 선보여

의성군은 안성예당에서 ‘2019 의성이웃사촌청년예술캠프 예술의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국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8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성군 안계면을 비롯한 인근 7개면의 커뮤니티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했던 안성목욕탕은 현재 안성예당으로 탈바꿈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예술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의성 프로젝트’는 청년예술가들이 안계면의 지역자원에서 얻은 예술적 영감을 전시·공연·퍼포먼스 등 자신만의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예술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의 새로운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 20팀을 모집했다.

예술의성 프로젝트의 전시명은 안계상회(安溪想會)로, 안계를 생각하며 모인 작가들의 전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안계상회는 총 3가지 색션으로 이뤄지는데 각 색션은 ‘Mime



서성교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이혜정 다원UAV아카데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병해충무인항공방제기 운영 전문가 양성 협약 체결

성주군농업기술센터-다원UAV아카데미

성주군은 11월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원UAV아카데미(대표 이혜정)와 병해충무인항공방제기운영 전문가 양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서성교)은 “고령화되는 농촌지역에서 농업용 드론으로 병해충방제를 하면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과 시간을 단축시켜 작기에 많은 면적에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

지구가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호흡을 되찾을 수 있도록 'Green Tomorrow'를 열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가는 시간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중심 KECO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www.keco.or.kr

영덕군, 생활 SOC 복합화사업 100% 선정

영덕읍 다함께 행복 청사 등 총 4개소 11개 시설

영덕군이 공공도서관과 소규모 체육관 등 정부의 내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에 총 4개소 11개 시설이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

경상북도는 총 19개 시·군이 복합화사업을 신청해 총 30개가 선정됐는데, 영덕군은 선정 건수와 국비 확보 금액 모두 도 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생활 SOC사업은 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특히, 생활 SOC 복합화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 연관된 10종 시설을 오는 2020년부터 3개년 간 중점 공급하는 사업이다.

영덕군은 정규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실·과·소 및 읍·면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발 빠르게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한 것

이 생활 SOC사업에 100% 선정되고 좋은 실적을 얻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영덕군 다함께 행복청사’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이라는 공모사업과 함께 복합적으로 추진돼 노후화된 읍사무소와 군민화관을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하나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교통의 요충지에서 군민들에게 행정, 돌봄, 문화, 주차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주 행복드림센터’는 공공도서관과 소규모 체육관, 주거지 주차장을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북부권 군민들에게 맞춤형 문화·생활체육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지 주차장도 함께 개발돼 영해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주차난도 해소될 전망이다.

‘강구 건강활력센터’는 면민들의 후회된 읍사무소와 군민화관을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하나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면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면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영덕군 미래인재 양

성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주거지 주차장을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과 교육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집중해 영덕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생활 SOC 복합화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생활 SOC 복합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위로·희망을 전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형기 기자

울진군 십이령 등금쟁이축제

2020년 농촌축제 공모사업 선정

울진군의 십이령등금쟁이 축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농촌축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주민 화합, 전통 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에 지원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축제 지원사업에서 전국 67개소가 선정됐으며, 경북에서 선정된 9개 농촌축제 중 울진군 십이령등금쟁이 축제는 지난 2013년 선정된 이후 유일하게 8년 연속 선정됐다.

십이령등금쟁이 축제는 복면 삼당 권역(상당리, 하당리, 두천리)의 주민 화합과 문화유산인 ‘십이령바지

계꾼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2015년 십이령바지계꾼놀이 보전회를 설립하고, 지역 주민들모만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주민 주도로 시작된 축제이다.

올해 4월 개최된 축제 내용으로는 옛 보부상들의 모습을 재현한 십이령바지계꾼 놀이, 지역체를 겸비한 주모 선발대회, 등금쟁이 사진전, 물동이 이고 달리기, 노인회에서 준비한 건강댄스 등으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개최된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지원사업 ‘매우 우수’ 사례로 선정돼 농촌축제 우수 사례집에 소개될 예정이다.

■남형기 기자

세계 유일의 탈 관련 유네스코 NGO 자문기구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 회장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제7회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필리핀 바클로드시에서 개최한다.

필리핀 대표 축제이며 최대 탈 축제인 마스카라(Maskara) 페스티벌이 열리는 바클로드시는 '미소의 도시'로 불리는 도시로서 2017년 제6회 라오스 총회에서 차기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 라오스 총회에 이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 후원 명칭과 로고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서 세계 보편 문화인 탈의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제7회 필리핀 총회

2017년 라오스 총회 이어 유네스코 공식 후원 명칭·로고 사용 승인

중요성과 '세계 탈 문화의 메카, 안동'의 브랜드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홍보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탈 문화의 안과 밖 : 탈, 연행, 그리고 문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필리핀 총회는 17개 국 120여 명의 탈 관련 국내·외 학자를 비롯해 문화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탈 공연자 등이 참가해 각 국가의 탈 문화의 진흥과 보존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정책 및 학술 발표에서는 기존의 '연행' 중심의 연구 방법에서 탈피해 탈 문화의 유래와 전승 양상, 신화와 의례, 탈의 제작과 관리, 공동체와 연희자 등 탈 문화 전반에 걸쳐 보다 넓고 깊은 관점으로 탈 문화 연구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탈 문화의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토론회가 진행된다.

또한, 연행이 보유하고 있는 탈 중 약 400점이 전시되는 세계 탈 전시회가 바클로드시의 특별 요청으

로 인해 총회 기간을 비롯해 올해 연말까지 열리며, 한·필리핀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하회별신굿탈놀이, 북청사자놀음 등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탈춤을 비롯해 K-Pop, 중국 천극원의 변검, 물소매춤, 필리핀 마스카라 댄스팀 등이 참여하는 총회 특별공연이 바클로드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권영세 세계탈문화예술연맹 회장은 "이번 필리핀 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사라져 가는 탈 문화의 보

존과 진흥에 대한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특히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비롯한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있어 연행이 유네스코 인가 NGO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홍식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사무총장은 "'지역(로컬)이 주도하는 세계화'라는 슬로건 아래 '더 큰 성장과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IMACO'를 주창하며 이번 총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시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수준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형기 기자



성주군은 지난 5일 성주 벌고을운동장에서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3개 기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도 생물테러 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안동시, 2020년도 유기질 비료·토양 개량제 신청

내달 4일까지 접수

안동시는 내년도에 사용할 유기질 비료 및 토양 개량제를 오는 12월4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 비료 및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해 토양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2020~2022년도 공급하는 토양 개량제는 지난 2~5월 중 신청 받았으나, 신청 시기를 놓친 농업 경영체는 신청서에 농지 정보, 토양 개량제의 종류 등을 기재해 농 소 재 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 개량제는 3년 치를 신청받아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2020년에는 풍산읍·외동면·북후면·서후면, 2021년에는 풍천면·일직면·남후면·남선면·임하면·길안면, 2022년에는 임동면·예안면·도산면·죽전면 및 동(洞)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유기질 비료(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 복합 비료) 3종은 20kg 1포당 1700원을 지원하고, 부속유기질비료(가축 분퇴비, 일반 퇴비) 2종은 등급에 따라 1400~1700원을 지원한다.

농업인들의 비료 구입 부담을 줄여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는 유기질 비료, 토양 개량제 뿐만 아니라, 각종 친환경 농자재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마련과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다 할 방침이다.

■남형기 기자

울진군 북면지역사회보장協

희망드림 생필품 지원사업

울진군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인균)는 지난 5일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희망드림 생필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이며 복지 분야 중점 추진사업인 2019년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로 실시하는 특화사업으로, 경제 위기에 놓인 독거 노인과 저소득 가정 30가구에 생필품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다.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독거 어르신, 저소득가구 등 30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균 공동위원장은 "희망드림 생필품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해 우리 지역 경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돌아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세중 북면장은 "민·관의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형기 기자

성주군,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 훈련

성주군은 지난 5일 성주 벌고을운동장에서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3개 기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도 생물테러 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에 따른 기관별 상황 조치능력 향상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가 함께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초동 대응과정을 연출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1단계 백색의

미생물질 발견 및 신고 접수, 초동대응팀 상황 전파, 2단계 초동대응팀 및 유관기관 초동 조치, 3단계 생물테러 병원체 독소 다중 탐지 키트의 음성 판정에 따른 조치, 4단계 환경검체 이송 및 환경 제독 등 이다.

성주군은 생물테러 모의 훈련으로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를 확립해 위기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생물테러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또한 군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형성달 기자

욕심나시죠?
눈 한번 딱 감고
놓아주세요!

늘어나는 욕심으로 줄어드는 물고기들.
우리의 미래, 아이들은 물고기를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어린 물고기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우리의 미래, 아이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아름다운 선택이
내일 풍요로운 우리 수산자원으로 되 돌아옵니다.

